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0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 특별강연에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 및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대한민국 AI·우주·에너지 중심지 전남"

전라남도는 20일 오후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초청해 'K-국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과 전남도가 공동 주최한 이번 설명회에는 휴일에도 도민 1천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K-국정설명회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그간의 국정 운영 성과와 향후 국정 방향을 설명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설명회는 국정 운영 방향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민석 총리는 "약호남시무국가" 전남은 AI, 우주, 에너지 등 미래 전략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일수록, 발전이 늦은 곳일수록 국가 정책과 예산에 반영해 균형발

20일 전남서 'K-국정 설명회' 개최... 도민 1천여 명과 직접 소통
김영록 지사, 국립의대신설·RE100 미래첨단국가산단 등 적극 건의

전을 이뤄나가겠다"며 "지방정부와 함께 새로운 전남의 대부흥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립의대 설립을 비롯해 전남의 핵심사업들이 국가 균형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립과 함께 이뤄낸 '국민주권 K-민주주의' ▲당당한 외교 ▲투명한 경제 질서 구축 ▲AI 기반의 미래산업 육성 ▲K-문화국가 실현 등 앞으로의 국정 방향과 의지도 설명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국무총리께서 직접 전남을 찾아 도민들과 국정 방향을 공유하고 소통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전남은 AI-에너지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아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선 도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김민석 총리는 농수산업 중심지 전남에 농협과 수협 분사 이전 필요성 건의에 대해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발맞춰,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농·수협 분사 이전 등도 포함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이 선도적으로 시행 중인 출생기본소득의 국가 제도에 대한 건의에는 국가 정책 발전 차원에서 의견에 깊이 공감했다.

김영록 지사는 설명회에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지역 핵심 현안인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 통합국립의대 정원 100명 이상 배정과 500명 이상 규모의 대학병원을 목표로 순천에 각각 설립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국가 미래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전남 광양·순천 일원에 'RE100 미래첨단 국가산단' 조성 및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건의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수 인프라인 에너지 고속도로 확충을 위한 순전설비 조기 구축도 적극 요청했다. /기동취재부

"꿈의 에너지 인공태양 나주에 뜬다"

과기부, 내년 8월 통과 목표 15일 예타 신청서 접수
전남도·나주시 내년 상반기 토지 보상 설명회 개최
2027년 예산 확보 시 상반기부터 조성 공사 본격화

'꿈의 에너지'로 불리는 핵융합 실증 기술을 개발할 '나주 인공태양 연구시설' 조성을 위한 후속 절차가 본격화됐다. 인공태양은 수소 1g으로 석유 8t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핵융합 기술로 화석연료 고갈과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2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5일 '핵융합 핵심기술(인공태양) 개발·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연구개발 예비타당조사 신청서를 공식 접수하면서 사업이 본격도에 올랐다. 당초 과기부는 전남도, 나주시 간 3자 업무협약부터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협의 없이 곧바로 예타 신청을 먼저 했다. 연구개발 예타는 과기부가 주관하나 실제 조사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등 전문 기관이 위탁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예타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위원장을 맡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과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2018년 이후 국가 연구·개발(R&D)사업 예타는 기획재정부가 아닌 과기부가 담당하고 있다. 과기부는 내년 8월 예타 통과를 목표로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또 이를 발판으로 2027년 정부 예산 확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연구시설은 나주시가 과기부가 추진하는 해당 사업의 입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설립에 가속도가 붙었다. 계획상 총사업 기간은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0년이지만 '핵융합 첨단 인프라 5대 시설' 구축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5년 이내 완료로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시설 위치는 나주시 왕곡면 에너지국가산업단지 일원이며 부지 규모는 약 103만4000㎡(31만2785평)에 달한다. 예상 사업비는 1조2000억원으로 전액 국비가 투입된다. 지자체(전남도 40%+나주시 60%)가 제공하는 부지와 부대시설 비용은 제외한 금액이다. (2면에 계속) /뉴시스

광주시, 12·29여객기참사 1주기 시민분향소 운영
22~29일 8일간 전일빌딩245 1층... "에도 희생자 기억해달라"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2·29제주항공여객기참사 1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전일빌딩245 1층에 시민분향소를 설치·운영한다. 분향소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운영 기간 동안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해 헌화·묵념으로 희생자들을 기릴 수 있다. 이번 분향소는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과 이웃을 잃은 유가족들의 슬픔에 시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연대하는 의미를 담아 마련됐다. 광주시는 분향소 운영 기간 동안 안내 인력을

상시 배치할 계획이다. 김영선 통합공항공교통국장은 "추모 분향소가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모든 분들이 함께 애도하는 마음으로 희생자들을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12·29제주항공여객기참사 1주기 추모식'은 국토교통부와 유가족협의회 주관으로 오는 29일 오전 10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다. 추모식에 앞서 오는 27일 오후 2시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5·18민주광장에서 '광주전남 시도민추모대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전광훈 기자

영광 법성포 청산양만 명품 장어

無항생제 無균 無소독제!

1일 18회 순환여과 및 미생물 배양 정정시스템으로 국내산 청정 명품장어

HACCP (위해요소관리우수) 해양수산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지정업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 AQ-0026

무항생제 (NON ANTIBIOTIC) 해양수산부
인증기관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15-18-0001호

전국 500여 양만장중 무항생제 지정업소 단 1곳
전국 500여 양만장중 HACCP 지정업소 단 3곳

예약문의 T. 062)233-9592

광주 동구 내남동 330-3(월남지구 호반2차 옆 솔바우주유소 옆)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 약품을 쓰지 않은 장어만 판매

저희 장어명가 청산 장어는 국내유일 무항생제 인증과 해썬(Haccp)으로 인증된 양어장에서 "무항생제, 무균, 무소독제"로 직접키운 명품장어입니다. 무항생제 장어 최고 품질!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에서 모시겠습니다.